

‘장마에 폭염까지’ 농작물 병해충 확산될라...

철저 방제 · 관리 ‘필수’

농진청, 발생 정보 발표
고추, 방제 소홀히 할 경우
작황 부진 등 피해 우려
고랭지 무·배추는
방제시 등록약제 분묘
5~7매 이후에 살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긴 장마 이후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고 고온다습한 조건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과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장마 후 병해충 관리대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달해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

협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공동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체 벼 재배면적에 대해 빠짐없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장마 후 병해충 관리대책으로 고온기 벼와 노지채소 등 주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발생전망과 방제요령을 소개했다. 벼 병해충 관리요령으로는 7월부터 지속된 장마로 발생한 잎도열병이 이삭도열병으로 전이가 예상되므로 출수(이삭패기) 전 10일경과 이상이 80% 정도 됐을 때 등 2회의 방제를 당부했다.

장마 이후 온도가 높아지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잎집무늬나뉠병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인 흑명나방은 7월 상순경 1차 방제를 완료했다더라도 재차 기류를 타고 비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 나온 지엽(출수 전 마지막 잎)에 유충이 갇혀있는 흔적이 있는 경우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

노지채소 중 고추는 8월 중 단저병

과 역병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작황 부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고랭지 무·배추는 온도가 높을 때 무름병이 발생하므로 방제 시 등록약제를 분묘이 5~6매 이후에 7~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땅 닿는 부분까지 약제가 잘 묻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발생이 우려되는 탄저병은 다습한 조건과 25℃ 전후 온도에서 감염이 잘 이루어지므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작물별 적용약제에 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의 농약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중섭 과장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방제 시점이 될 것이다”라며,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방제해 주시고, 아울러 농작물 폭염피해 및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풋꿀’ 수확

‘풋꿀’은 완전히 익은 꿀보다 구연산은 3배, 총 폴리페놀 함량은 2배 정도 높으며, 최근에는 신경 재생 효과도 확인됐다. 올해 풋꿀 유통량은 1,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제주 서귀포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어린 감귤 ‘풋꿀’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북농협, 자체 방제조직 투입 병해충 방제 총력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최근 긴 장마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협공동방제단과 자체 방제조직을 긴급 투입해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시는 최근 벼 병해충 발생량 조사결과 흑명나방, 문고병(잎집무늬나뉠병), 잎도열병 등이 발견되고 있고, 장마가 끝나고 고온이 지속시 증식이 좋은 조건이 우려됨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소

홀히 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관내 농협의 전년도 방제면적은 총 1만2,840ha(남원농협 4,800ha, 춘향골 농협 4,000ha, 지리산농협 1,800ha, 운봉농협 2,240ha)로 올해처럼 긴 장마 후 긴급한 작기 방제를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이하 품팍방제단)을 활용하고 있다.

품팍방제단은 2016년에 구성된 농협 공동방제단으로 현재 도내 총 14개 농

협이 무인헬기 15대(조종사 30명)를 운영하는 조직으로 초기 방제 면적이 2,500ha에서 전년도에는 2만2,000ha로 방제사업부문을 전국 1위를 달성한 최우수 조직이다.

이번 방제에는 무인헬기 15대, 멀티콥터 1대, 조종사 32명이 참여했으며, 방제현장에는 감영일 전북농협 부분부장,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이 함께 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품팍방제단을 활용한 신속한 방제로 상당수의 수재민이 발생한 남원지역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수소인프라 신사업 발굴 나섰다

호주 연구기관 등과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가 호주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수소 인프라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20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ㄸK르면, 현대자동차는 호주 최대의 종합 연구기관인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업체 포테스큐와 혁신적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의 핵심은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공급 인프라 관련 혁신 기술을 상용화해 글로벌 수소 공급 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고 수소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

한 것이다. MOU 체결식은 지역조 현대자동차 전라기술본부장 사장, 피터 메이필드 CSIRO 환경·에너지·자원 부문 본부장, 줄리 셔틀워스포테스큐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임스 최주한 호주대사도 참석해 한국과 호주 양국의 수소 에너지 협력을 축하했다.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국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혁신적 수소 생산 기술·제품의 공동 개발 ▲수소의 공급 인프라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현대자동차, CSIRO, 포테스큐는 금번

업무협약에 따라 CSIRO가 개발한 금속 분리막을 이용해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하며, 특히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면, 호주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암모니아 형태로 바뀐 글로벌 시장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원주=이종복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험... 야시장 개장이 언제?”

익산매일시장 상인회, “방역이 우선” 중·매·서 야시장 개최 철회 요구

익산매일시장상인회(회장 소점호)는 역사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회째를 맞는 익산 중매시(중앙·매일·서동)시장 야시장 개최철회를 요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익산 중매시 시장 상인회 중매일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감염시킬 가능성이 너무 크기에 어쩔수 없이 야시장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가 장마이후 각종집회, 시장나들이 및 각종 모임 등을 하며 사회적거리 두기와 마스크착용 및 개인소독관리 등이 느슨함을 틈타, 감염병이 폭발하면서 서울 남대문 케내다상가, 광복절 집회 및 익산시 관내 3명 감염 등으로 익산시 관내 음식점 및 시장나들이 등이 주춤하면서 경기침체로 돌아서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다 색출하고 방역관리가 잘 수행돼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앙시장과 서동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야시장 개장을 찬성하는 반면, 매일시장은 야시장개장으로 코로나19발생이 시장폐쇄와 시민건강 불안조성 등을 조기에 막기 위한 개최 철회를 익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매일시장상인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야시장 개장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야시장개장 예산을 전용해 전통시장의 열악한 방역시설과 방역장비 및 방역소모품 등을 더 보급, 안심하고 시민들이 쇼핑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데 예산을 투입해



익산 야시장 전경사진.

시 일자리정책과, “가을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개장 철회”

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소점호 매일시장 상인회장은 현재 3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태에서 누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은 분명하기에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한다고 해서 감염될 수 있어 소중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시장 개장을 한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터트리는 것과 같다”며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거나 백신 개발이 될 때 야시장을 개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JTV 와글와글가요제’도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측에서 사회적관계 거리두기를 발표한 상황 속에서 야시장을 개장해 방역에 구멍이 나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관계당국이나 주최 상인회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서용석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매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로 야시장 준비를 하겠다고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매대 및 조리기구 소독 강화, 입구와 휴게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매대와 고객 줄서는 간격 유지 등 고객 방역을 강화하겠다”며 “상인과 시민 다수가 서동시장도 야시장 개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차 심해져서 가을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야시장개장을 철회하고 내년에도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세워 시장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야시장 개장사업에는 1억의 예산이 지원되며 시비 8000만원과 도비 20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이 무산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기에 굳이 올해 개최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전용해서 전통시장에 부족한 방역장비 구입, 시설개선 및 방역소모품 등을 지원 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LX, 공간정보 수집원 양성

디지털 노인일자리 창출 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직무대행 최규성·LX)가 공공데이터 구축을 통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LX는 2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60세 이상 어르신 40명은 8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전남·전북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비·공간정보 등을 수집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영기 이사장,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권익구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이 업무협약을 한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108호’ 진안서 오픈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일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마이용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08호’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요섭 사회복지과장, 전북은행 임채원 부행장, 고창배 익산지역금융센터장, 김해중 진안지점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마이용지역아동센터 박지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마이용지역아동센터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안읍 일대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던 차에 전북은행에서 이번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전북은행에서는 오래된 책상, 의자, 좌탁 등을 교체해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블라인드 및 홀딩도어 등을 설치하여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용아동 30여명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우태민 기자

전북 공유경제 새이름 ‘전함’

전라북도 함께쓰기’의 준말

경진원, 네이밍 공모 수상작 선정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전북 공유경제 표·네이밍, 슬로건 공모전 출품작품 심사를 완료하고 수상작 11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현재 개발 중인 전라북도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총 57건이 접수되었고, 가치성, 공공성, 대중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표·네이밍 최우수상은 ‘전라북도 함께쓰기’라는 뜻의 ‘전함’이 선정되었다. 최신 트렌드 디자인 유형의 설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최우수상은 ‘바람 더하기(+) 가치 나누기(÷)’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표·네이밍 부분 우수상으로 ‘가치있다 나누다’라는 의미의 ‘가치·잇이’가, 장려상으로 ‘공드림’, ‘가치이름’, ‘모다남’이 선정됐다.

우수 슬로건은 ‘나누는 공유경제! 더하는 행복전북!’, ‘서로 믿고 함께하는, 행복가득 공유전북!’이, 장려상으로 ‘공유하는 유희자원, 공감하는 전북행복!’, ‘다 같이 Oh Share’, ‘너와 나의 소비의 연결고리, 셰어링 페어링’이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확대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외국인 근로자 금융 지원을 도내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를 리니 전주센터(센터장 정동필)에서는 지난 6월부터 도내 3만6,000여명의 체류 외국인 중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용 대출상품을 통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따뜻한 금융클리니 전주센터 외에도 완주산단지점, 익산지점, 군산지점, 정읍지점, 김제지점 등에서도 외국인 대출을 시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